6주 2020년 동계방학 묵상지

이름:_____ 학번:_____

1월 18일 월요일	<말씀묵상>	시 115-118

• 내용요약: 115편은 이스라엘의 시련기를 배경으로 작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편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 후 예배자들이 헤어지기 직전 제사장과 백성들의 교창(交唱)에 의해 불리워진 시편들 가운데 하나(115-118편)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함(1절), 우상의 허망함을 상기시킴(2-8절), 국난에 즈음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함(9-15절), 살아생전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친다(16-18절). 116편은 매우 아름다운 운율이 매절마다 반복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시의 개인적 감사 시편이다. 117편은 할렐 시 중 가장 짧은 시다.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힘써 권유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118편에서 다윗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찬미하고 있다.

‣ 질문: 시115-118편은 어떻게 불려지는가?

‣ 생각하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확인한 시편기자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자로서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가?(116:1-5절).

1월 19일 화요일	<말씀묵상>	시 124-126

• 내용요약: 시124편은 지난 날 자신의 힘으로써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사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다윗의 시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지난 날에 대한 회상(1-5절), 끝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절박한 상황 중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6-8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125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서 일종의 신앙인의 개가(凱歌)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특별하신 보호(1-3절), 선인과 악인의 극히 대조되는 운명(4-5절)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126편도 작자 미상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을 청산하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자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포로생활에서 해방을 얻은 자의 기쁨과 찬미(1-3절), 비록 고난에 찬 현실일지라도 인내하며 참신앙과 소망을 견지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신앙고백(4-6절)이 소개되고 있다.

‣ 질문: 시 126편의 배경은 무엇인가?

‣ 생각하기: 지난 날의 은혜로운 체험은 과거의 기억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밑바탕이 된다.

1월 20일 수요일	<말씀묵상>	시127-129

• 내용요약: 127편은 72편과 함께 솔로몬의 작품으로 알려진 일종의 교훈의 시요 지혜시다. 특히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인간들 가운데 가장 유복했던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 복의 근원이 과연 누구이며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과연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하나님 없는 인간노력의 허무함(1-2절), 하나님이 허라학신 자녀의 복(3-5절)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128편는 작자 미상으로서 진정한 복의 출저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 주는 지혜의 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1-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적. 신앙적 행복과 영원한 평강(3-6절)을 노래하고 있다. 129편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된 후 익명의 시인이 지난 날의 고통스러웠던 생활과 그러한 고통을 감래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쓴 것이다. 지난 날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보존해주신 사실(1-4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원수들도 조만간에 멸절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5-8절)등으로 엮어져 있다.

‣ 질문: 인간들 가운데 가장 유복했던 자는 누구며 교훈은?(127편)

‣ 생각하기: 우리가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절망치 않고 끝까지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1월 21일 목요일	<말씀묵상>	시 130-132

• 내용요약: 130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서 시편에 언급된 일곱 편의 회개시(6, 32, 38, 51, 102, 130, 143)가운데 하나이다. 자신이 처한 아픈현실과 탄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참회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이 죄 사함의 은총을 지닌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으며(1-4절) 그분의 인자와 구속의 은혜를 갈망한다(5-8절). 131편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었던 다윗의 시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충만하고 안정된 심정을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는 아이의 상태에 비겨 표현하였다. 132편은 성전 봉헌의 노래로 솔로몬의 시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법궤 안치를 간절히 사모한 것에서부터 성전을 봉헌하는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오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 질문: 회개 시로 알려진 일곱편의 시는?

‣ 생각하기: 우리가 겪는 대다수 고통의 원인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러야 한다(눅18:13).

1월 22일 금요일	<말씀묵상>	시 133-135

• 내용요약: 133편은 다윗이 작시한 찬양시로 형제사이에 이뤄지는 교제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노래한다. 다윗이 노래한 형제사이의 우애는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참사랑으로써 하나된 성도들의 영적이고 신령한 연합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엡4:3-6절). 134편은 '성전에 올가는 노래'(120-134편) 중 맨 마지막 찬양이다. 교창형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먼저 성전 밖에 머물고 있는 순례자들이 밤을 잊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1-2절), 이에 성전 안에 거하던 봉사자들이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 응답하게 된다(3절). 135편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를 주제로 하는 찬양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 찬양되고 있다.

‣ 질문: 120-134편은 언제 부르던 시인가?

‣ 생각하기: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밤이라 하여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니 잠을 깬 낮 동안에야 어떠했겠는가? 구원받은 자는 밤낮 주야로 주를 경배하며 찬양해야 한다.

1월 23일 토요일	<말씀묵상>	시 136-138

• 내용요약: 136편은 일련의 감사시들(105, 107, 108, 135, 136) 중 마지막이다. 여기에는 모든 신들 중 뛰어나신 최고의 신 하나님(1-3절), 모든 주(主) 중 가장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4-22절),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23-26절)에 대한 찬양이 감격적인 감사와 어우러져 있다. 137편은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 경건한 신앙인이 옛날을 회상하며 지은 비탄시며 슬픈 애가이다. 포로로 끌러간 그곳에서 온갖 시련을 겪어야 했던 시인의 아픈과거(1-4절), 고통이 심할수록 더 짙어져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5-6절), 자신을 비참한 지경에 빠뜨린 원수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7-9절)등으로 엮어져 있다. 138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구원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노래이다.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일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일 등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 질문: 137편의 핵심내용은?

‣ 생각하기: 136편에서 시인은 26회에 걸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하였다. 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시인의 모든 언어를 지배하고 있었다(136:1-26절).

1월 24일 일요일	<말씀묵상>	시 139-141

• 내용요약: 139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적 찬양을 돌린 시이다. 시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세 가지 속성에 대해 찬양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1-6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7-12절), 하나님의 전능하심(13-18절)을 찬양한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같은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사 구원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19-24절). 140편은 다윗의 비탄시다.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소한다. 악인의 악행에 대한 고발(1-5절),, 구원에 대한 호소(6-11절), 구원에 대한 확신적 찬양(12-13절)이다. 141편도 다윗의 비탄시로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되, 악에 빠지지않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본시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세이다.

‣ 질문: 하나님의 대표적 세가지 속성은?(시139편)

‣ 생각하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수준과 자세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